



주 제:	“하느님의 어린양”	“연중 제 2 주일”	2008년 1월 20일
복음 묵상:	요한 1,29-34	이사 49,3. 5-6	1 코린 1,1-3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합니다. 때로는 고통 중에서도 선한 결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도 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온 몸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을 보기도 합니다. 나아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은 강의와 강론, 말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어떤 때에는 더 유명한 강사에게 더 좋은 말을 듣기 위해 찾아다니기도 하고, 더 진하게 하느님을 보고 느끼고 싶어서 피정이나 기도회 등에 시간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요한과 우리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이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증거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 증거는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태도 변화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신앙 안에서 보고 들은 많은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넘쳐나는 볼거리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참으로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 어쩌면 우리는 이미 보았음에도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어린양이심을 알아채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느님의 어린양이 우리를 찾아 다니시는 하느님 사랑의 땅입니다. 좀더 눈을 크게 뜨고서 내 주위를 둘러 봅시다. 하느님의 어린양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의정부 박명기 신부)

## 1. 성가대 소식

- 1) 이제 부활절이 앞으로 9 주밖에 남아 **금주부터 연습을 시작합니다.**  
 금년 부활 미사곡은 J.A. Korman 의 성체 현양미사곡으로 정했습니다.  
 각 파트별 연습을 할 수있도록 본당 웹에 올려놓았으니 틈나는 대로 열심히 연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D 는 MP3 로 깨끗한 음을 구하면 바로 복사하여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 2) **2008년 수고해 주실 성심 성가대 임원.**  
 지휘자: 김 인숙 세실리아, 반주: 최 상진 엘리자벳,  
 단장: 김 지만 토마스, 총무: 허 경예 수산나,  
 회계: 이 흥진 데레사, 악보장: 박 영아 소피아  
 소프라노: 이 은순 아네스, 알코: 김 재훈 세실리아,  
 테너: 최 주남 예로니모, 베이스: 신제완 대건안드레아,
- 3) 지난 **성탄 악보는 모두 금주까지 반납해** 주시고, **새 악보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 2. 기도 요청

- 1) **축신부님 서품 축일**  
 금주 교중 미사중에 본당 **양형권 바로로 주임 신부님의 서품 축일** 기념식이있겠습니다.  
 신부님의 서품축일을 축하드리며,영육간의 주님의 축복이 듬뿍 내리시길 기도합니다.
- 2) 최주남 예로니모 형제님께서 디스크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불순한 일기에 많은 가족들이 독감과 함께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으로 참석치 못하는 모든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다. ◦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 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네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이다.’ ◦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1분 명상

“ 너희들은 나를... ”

독일의 어느 성당에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한다.

너희는 나를 구세주라 부른다  
 그러나 나에게서 구원을 바라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른다  
 그러나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른다,  
 그러나 그 길로 가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생명이라 부른다  
 그러나 그 생명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스승이라 부른다,  
 그러나 나를 따르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훌륭하다고 부른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현명하다고 부른다,  
 그러나 나에게 묻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주님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나를 섬기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전능하다고 부른다,  
 그러나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장차 너희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놀라지 말라,



